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구원의 역사    성경: 로마서 11장 17-23절

Tag:

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롬11:17-23)

근대 이후 우리나라의 롤 모델은 항상 일본과 미국이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항상 이 두 나라와 비교하면서 살았다. 특히 일본은 36년이나 우리나라를 식민통치 하였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반드시 이겨먹어야 할 나라이다. 그래서 당시 경제적으로 최하위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죽기 살기로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

그러나 한국이 이처럼 최빈국이었다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세계 10 위권 국가가 된 배경에는 기독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들고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에 통역사로 승선해서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 (1866년 9월2일 27세 박춘권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성경을 건넨.)

박영식(평양성관리)도 최치량이라는 당시 12세 소년에게 성경을 건네받고 벽지로 사용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다. 그의 집은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이곳에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시작됨.)

그후 고종은 개화를 선언하고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용하게 되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온다. 1886년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세우고 성경과 영어를 비롯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 등을 가르쳤다. 1894년 이승만이 과거제도가 없어지는 통에 친구들의 권유로 입학한다. 그는 6개월만에 영어를 독파하고 오히려 영어선생이 된다.

그후 이승만은 입헌군주제를 위해서 애쓰다가 반역죄인으로 몰려 한성감옥에 수감된다. 그곳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다 성령을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조선은 충성 한방 없이 일본과 합병된다. 그 후 1918년 1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듣고 국내에서는 독립선언 운동이 일어난다.

3.1운동 이후 상해에 통합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1919년 9월11일 국호는 대한민국, 정체는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 정부구조는 삼권분립, 경제는 재산소유의 자유등으로 정한다. 철저한 기독교신자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직함 갈등이 있었다.)

당시 소련 국제공산당의 방해공작이 있었다. 특히 연해주 쪽 사람들을 포섭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임시정부를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도록 힘썼다. 소련을 다녀온 몇몇 인사들로 인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이들의 영향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는 한국을 독립국으로 하자고 했다.

1945년 2월4~11일. 얄타회담에서는 신탁통치를 제안, 임정을 통해 정식 정부의 출범을 계획했다.

극동문제는 소련이 독일 패망 이후에 일본에 선전포고하기로 하였

고, 연합군은 소련의 요구대로 사할린과 북해도를 소련에게 주기로 하였고 전쟁수행을 위해 만주관할권과 한반도를 달라고 함.(소련은 참전을 미루었다.) 루즈벨트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다가 이승만이 그 소식을 듣고 미국에게 강력하게 반대해서 미국도 한반도에 들어가기로 함.(포츠담에서 변경함.)

1945년 8월 6/9일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었다. 9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한다.

그 후 소련은 한국까지 집어 삼키려고 북쪽에 소련군을 전개했다. 그래서 8월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두명의 장교가 일본이 항복하면 한국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38선 이남까지 미군이 점령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다.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 이미 북한에 인민공화국을 재빨리 세워버림.

- 45.9.16 인민정부 수립 요강 발표
- 45.12.1 각 도시에 인민재판소 개정
- 46.2.8 북한 단독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 토지개혁법 발표
- 46.8.28 노동당 창립대회
- 11.3 인민위원회 선거
- 12.6 화폐개혁
- 47.11.8 헌법제정 위원회 조직 12.20 조선 임시헌법 초안 통과
- 48.2.10 임시 헌법 공포 2.14 조선인민군 창군 선포
- 48.7.23 태극기 폐지, 인민공화국기 제정공포

남한에서는 해방 이후 먼저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은 좌익 쪽 사람들이었다. 찬탁 반탁으로 어지럽다가, 결국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48년 총선거를 하게 됨. 5.10 제헌위원 198명이 뽑혀서 5.31일 첫 회의를 시작함. (임시의장에 이승만, 기도에 이윤영목사)

(북한은 un의 입국 거부. 김구는 48.4.9 남북협상차 북한 방문. 5.5

일 성과 없이 돌아옴.(이미 전쟁 준비 완료된 것을 봄.) 49.6.26 암살 당함.)

6.25 발발 3일후 맥아더는 전용기로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후 1번국도를 따라 노량진 어느 언덕에서(동양맥주 공장 자리?)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40여분간 불타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때 이미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했다고 한다.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에는 군대 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고, 4.3사태니, 여순 반란 사건이 그로 인해서 발생했고, 덕분에 이미 6.25 이전에 공산당들과의 내전이 있어서 전쟁연습이 되었다.

당시 최영섭은 해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진해에서 근무했는데 군인들이 모금을 해서 해군함정을 구입하게 된다. (백두산함 대한해협전투)

만약 백두산함이 아니었으면 부산은 특수부대 600명에게 점령당했을 것이며, 전쟁은 이미 그 때 끝났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 유일의 드라마틱한 나라가 되었다. 여전히 이념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근현대사를 어떻게든 왜곡하려고 발버둥치는 저 종북세력들 앞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종북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 나라는 폭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바로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참담할 수 밖에 없다. 이보다 더 험악한 시대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세웠다. 우리는 이 풍요로운 나라를 김정은의 탐욕스러운 목구멍에 집어넣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영적전쟁이요 이념전쟁이니만큼, 깨어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임시정부 당시에도 소련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자들이 기독교인들

이었고, 요즘도 좌파 이념에 물들어서 앞장서고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우리는 저들과 대적하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처럼 영적무장운동을 확산하는데 힘을 기울이자.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찬양예배>

제목 : 사람이 감당할 시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Tag: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10:13)